市 전역 공원화 사업 結實

대상 영중면, 최우수상 영북면 차지

올 한해 포천시 공원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영중면이 대상을, 영북면이 최우수상을, 창수면과 화현면, 군내면, 내촌면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중면, 영북면, 군내면, 내촌면에 조성된 화단.

올 한해 포천시의 공원화 사업이 시 전역 350개소 17만3천383㎡(5만2천448평)의 면적에 총 536만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는 성과를 내며 주민들의 삶의 환경 개선과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포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가 공원화 사업에 참가한 관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최근 심사를 벌인 결과, 대상에 영중면이, 최우수상에 영북면이, 우수상에 창수면과 화현면, 군내면, 내촌면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영중면은 가로화단 41개소 중 19개소를 신설하고 목재 경계석을 설치해 화단을 아름답게 조성했으며, 3km에 달하는 낙석방지 펜스 구간에 페추니아를 심은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중면은 또 구간별 중점 식재의 일환으로 양문1리 약 1km 구간에 구절초를 심고, 주요 화단에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해 유례없는 가뭄에 적극 대비하는 등, 시의 공원화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영북면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맞춰 산정호수 진입로변 유휴지에 국화 화단을 조성하고 문암삼거리 꽃탑 설치와 연계해 샤피니아를 심는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공원화 사업을 전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모두 4개 면이 수상했는데 먼저 창수면은 추동리~진군교사거리 구간에 모판을 이용해 화단을 조성한 점이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조를 주민들과 함께 수확하는 등 단합된 응집력도 인정을 받았다.

화현면은 명덕리~수원산삼거리 구간에 단일수종으로 들국화를 심어 가을철과 어울리는 가로화단을 조성했으며 자체 육묘장 설치 및 꽃묘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내면은 코스모스 종자를 부인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파종해 민관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제2회 코스모스 꽃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점과 국지도 56호선 옹벽을 이용해 루드베키아와 벌개미취를 연계성 있게 심은 점이 인정을 받았다.

내촌면은 교통량이 많은 내리 입구 인터체인지에 이미지 화단을 조성해 포천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했으며 통행량이 많은 곳에 52개의 화분을 설치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년생 초화류보다는 다년생 야생화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해바라기 및 벌개미취와 같은 키가 큰 수종을 중점 식재해 보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모스길 걷기대회, 목재 가로화단조성, 자체 양묘장운영 등의 수범사례가 타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불법 수목장 일제조사 및 단속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장묘문화 확산 위해

포천시가 보건복지부의 불법수목장 단속지침에 따라 12월 한달 동안 관내 불법수목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계도를 벌인 뒤, 내년 1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무분별한 수목장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훼손과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계도 및 단속 대상은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림), 수림장(원)등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인터넷 및 일간지,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수목장을 광고·분양·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포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목장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건전한 장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전에 불법 수목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農都相生 1村 1社 姉妹結緣

영북면 소회산리♥아스공항(주) '아름다운 結實 기대'

영북면 소회산리(리장 신동진)와 아스공항(주)는 11월 22일 오전 11시 소회산리 마을회관에서 1촌 1사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신동진 소회산리 이장과 배상택 영북면장, 이상용 영북농협조합장 및 임직원, 황성택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및 마을주민들과 (주)아스공항의 최영한 대표이사, 상무, 노조위원장, 각 부서별 팀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신동진 이장은 환영사에서 "한미 FTA 때문에 농촌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1촌1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공항(주) 최영한 대표이사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촌1사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며 좋은 마을, 따뜻한 마을을 소개받게 되어 좋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여 인연이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성택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은 "농촌이 어려운 이때 서울 강서구에서 이른 시간에 오지 중의 오지를 찾아주신 아스공항(주)에 감사드리며, 소회산리는 토마토, 고추, 한봉, 축산을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변하지 않는 우정을 맺어 서로 상생하는 자매결연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스공항(주)는 소회산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50만원의 마을 발전기금과 안마의자 및 발마사지기, 자매결연 패 및 현판, 현수막 등을 준비했고 소회산리는 오찬(돼지 1마리, 순두부, 떡, 과일등)과 지대미(미소쌀) 20포, 김치 10통 등을 준비했다.

영북농협은 이번 행사를 위해 소주, 음료수, 막걸리, 현수막 및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지원했다.

아스공항(주)는 아시아나 써비스의 줄임말로 아시아나 항공사의 조업 및 지상·외항 조업으로 35억의 매출실적을 자랑하며 아시아나 항공의 급유를 시작으로 25개 항공사에 급유, 27개 항공사의 연 72만톤 화물조업을 하는, 1일 50대 항공장비 정비능력을 가진 인천공항 지상 조업회사이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포천시-한서대, 지역공항 공동협력단 구성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운영규정제정 및 이행합의

포천시(시장 박윤국)와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는 12월8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지역공항 및 항공관련학과 실습시설 유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부시장과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협력단을 구성했다.

이는 지난 11월8일 체결했던 포천시와 한서대학교 간의 '지역공항·항공관련학과 유치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협력단 운영규정'을 제정해 협력단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매 분기 및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한서대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포천시를 경기북부지역 항공인프라 구축의 중심도시로, 또한 한서대학교를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동협력단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기 일동노인대학 수료식

제2기 일동노인대학 수료식이 이금종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과 수료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일동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병설로 지난해 개설된 일동노인대학은 올해로 2번째 수료식을 갖게 됐으며 이날 7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건강과 행복해지는 지혜'라는 교육목표 아래 교양강좌, 건강강좌,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노인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한결같이 밝은 표정을 지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웰빙 부사의(不思意) ❸ 문화(文化)

'그 삶의 발자취'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회장

요즘 들어 '문화(文化)'라는 말을 많이 한다. 생활문화 정치문화 자동차문화 심지어는 조폭문화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다. 물론 모든 것에 문화란 말을 붙인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다. 그러나 '문화'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 속성을 잘 알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문화'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화(文化)란 뜻 글이 의미하는 대로 문화 그 '자체(自體)'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삶의 '발자취'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문화란 '글'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문화민족 예술문화 할 때의 문화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글'을 모르는 민족이나 '글'이 없는 민족을 미개민족(未開民族)이라 부르고 그들의 문화를 가리켜 미개문화(未開文化)라 부르는 이유이다.

문화민족으로 대접받으려면 우선 '고유(固有)의 글'이 있어야 한다. '문자(文字)'가 있어야 한다. 물론 고유의 말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화민족으로 대접받으려면 '고유의 문자'가 있어야 한다. 말은 있으되 문자가 없으면 문화민족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그만큼 문화면에서 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유세계(思惟世界)에서 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민족으로서 대접받으려면 문자가 있어야 하고 문화인으로서 대접받으려면 그만큼 글을 깨치고 또 많이 읽어야 한다. 그야말로 문화(文化)가 되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선각자(先覺者)가 되어야 한다.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나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글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두 개의 글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소리글이요, 다른 하나는 뜻글이다. 소리글이란 한글을 말하는 것이고 뜻 글이란 한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두 가지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두 가지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몇이나 되는가? 그것도 '소리글'과 '뜻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은 '발자취'이다. 문화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우리 선인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다. 발굴현장에서 문화를 말하고 역사를 말할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발굴현장에서 유물이나 부장품을 보고 우리는 그 때의 문화수준이 어떻고 생활수준이 어떻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때 말하는 문화수준이나 생활수준이란 그 당시를 살고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말하는 것이다. 그 발자취의 '격(格)'을 말하는 것이다.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발자취를 크게 나누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신적인 것이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란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한글이나 조선왕조실록이나 팔만대장경 같은 것은 정신적인 소산이다. 불국사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판전이나 종묘 같은 것은 물질적 소산이다.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産)으로 등록된 이러한 보물(寶物)을 우리는 현재 7개나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백법 김구 선생은 말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지향해야 할 것은 문화요, 문화민족이다.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도 아니요, 부를 자랑하는 경제대국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는 것은 문화요, 문화민족이다. 이 얼마나 높은 이상이요, 지표인가? 문화(文化)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문화민족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격을 한 층 드높여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Essay

보내는 아쉬움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고문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만큼이나 빠른세월! 이 해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본 내 모습은 안개속의 미로처럼 아쉽기만 하다.

매사에 현명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못난 모습이 저물어가는 석양에 걸린 낙엽처럼 쓸쓸하다.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에 하얀 서리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서리꽃이 나뭇가지에 맺기까지 습도와 온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이다. 한순간 햇빛에 녹아 없어질지언정 순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비할 수 없다. 가는 님을 잡지 말라고 했던가?

잡아도 멈추지 않을 이 해의 마지막 달! 고통도 미움도 다함께 보내야 한다. 다시 만나야하는 새 날들은 더 많은 기대도 욕심도 함께 하지 말아야 함을 내안에 다짐해 본다.

그래도 함께 일하며 힘과 사랑을 나누어준 숱한 그리운 이들의 모습이 거울속에 나를 보듯 진하게 생각난다.

그들과의 시간속에는 꾸밈도 거짓도 없이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해 마무리하며 즐거워 했던 시간들!

감사하고 고마울 뿐 다른 어떤 표현도 전할 수 없음에 마음이 시리다.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모든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의 날이 있기를 빌어보고 있다.

하기야 세상 변화에 누군들 맞출 수 있을까? 땅값도 집 값도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한스러운 서민들의 애타는 소리가 온 나라를 꽉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지역 집 값은 타지역에 비해 안정권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일에도 좋은지 나쁜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실로 알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다.

이제라도 좋은 세상 만들기에 만인이 함께 하여 평안한 사회조성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을 마음속에 가져본다.

눈이라도 내릴 듯 하늘은 자꾸 회색 빛을 띤다.

기왕이면 포근한 함박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시리고 추운 겨울! 어미새의 깃털처럼 포근한 마음이라도 지닐 수 있게 어! 눈발이 날리고 있네...

어디선가 성탄축하송이 들리는 것 같은 작은 귓속 메아리가 울린다. 모두에게 평화를 주소서! 모아진 두손이 힘이 주어진다.

Essay

밤나무 아래에서

용 경 자 주부명예기자

우리동네 밤나무는 여러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준다.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하루밤 자고나서 찾아가보면 한움큼씩 밤을 손에 쥐게 해준다. 혹, 욕심을 내서 흔들고 막대기로 때리면 "알았다. 알았어"하며 조금 더 내어준다.

그러나 결코 모두를 다 내주진 않는다. 다른 사람 줄 것은 입을 꼭 다문채 굳건히 서 있는 우리동네 밤나무 참, 멋진 나무이다.

깊은 겨울, 초연히 서서 내년에 나도 멋쟁이가 될꺼야! 하고 말하는 것 같다.

결혼생활 10년하고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른들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온다.

"10년만 살아봐라" "조금 더 살아보면 알끼다" 아이 낳아 키우고 박봉에 살림살이가 빡빡해서 매일 힘든 생활을 신랑탓, 시댁탓으로만 돌리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젠 한심스럽다.

왜 그리도 싸웠는지..... 그토록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 우리네 삶도 강산이 변하듯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 변한다는 진리를 몰랐던 것일까?

지금의 어려운 생활이 결코 그대로가 아닌 눈 딱 감고 10년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밤나무가 앙상한 가지의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아름드리 멋진 모습으로 변한다는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힘들지많은 않을텐데..... 아름답게 핀 꽃 한송이가 홀로 외로이 꽃혀 있는 것 보다는 조화를 이루어 꽃힌 한 작품의 꽃꽂이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내가 신랑보다 조금 나아보인들 행복해보이고 사람이 넘치는 가정의 주부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젠 조급한 마음에 한숨쉬지 말고 내 동반자에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줘야겠다. 10년 후에 멋진 모습을 그리며.....

지유기고

계포일락(季布一諾)

이 희 용 포천연극협회 회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의 반복으로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선거전에 공식적인 약속으로 내걸었던 일들은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스스로 내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지 옛 역사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중국 전한시대(前漢時代)의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에 수록된 계포전(季布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초(楚)나라에 계포(季布)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인물이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적군이었던 계포를 잡는데 천금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그를 밀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백성의 신망이 두터웠으면 그를 천거하여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지내기도 했다. 하루는 조구라는 인물이 그를 찾아왔다. 평소에 계포는 권세욕이 너무 많은 조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구는 계포에게 소개장을 써달라고 청탁을 했다. 계포는 자신의 소개장을 받으려는 이유를 물었을 때 조구가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들은 황금 백 근을 얻는 것보다 계포의 한마디 승낙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季布一諾). 저에게 소개장을 써주신다면 당신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입니다"라며 그 이유를 말했다. 이때부터 계포일락은 '계포가 승낙한 한마디의 말이란 뜻으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우리 주위에는 공허한 말의 난무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그 중에서 젊은 부부들이나 노년층에게 공통으로 심각하게 가정의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는 출산과 보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포천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크게 늘어나서 아이를 가정 내에서만 양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에게 자식의 양육을 의지하고 있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독신으로 남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요즘 흔하게 접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의 아이들은 늘 주위사람 모두의 포근한 시선 안에서 성장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지역적 울타리로 아이를 보호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육아 문제가 개별가정에 전적으로 맡겨져서 육아에 대한 경험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의 공통적인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이 보육문제의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며 지지를 표현했고 그러한 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이다.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는 포천동이나 소흘읍 지역에서도 여느 곳과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문제,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문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충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자녀양육문제를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교육은 미래에 대한 그 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해체로 인한 자녀들의 보호와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을 위한 발전적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였던 보육시설에 확충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소의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일회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줄여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립 시설을 건립할 때에 보육 시설의 건설을 병행하여 이중 재정부담을 경감하거나 기존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임대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 건립 시 보육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여성회관, 마을회관,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에게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위기에 처해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사회적 성장을 도와야 우리 지역사회는 더욱 건전하고 튼튼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보육시설 확충과 미래의 희망을 일구겠다며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공약하였다.

공인은 한번 언급한 말을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며 그것이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인 것이다. 아무쪼록 계포일락(季布一諾)과 같이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들이 늘어나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